

이재명 “위대한 광주정신, 헌법 전문 수록하겠다”

‘민주화 이끈 시민’ 주제…동구 전일빌딩서 간담회 비상계엄~탄핵 과정 ‘빛의 혁명’ 기록으로 남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5·18 유족과 12·3내란 사태를 겪은 이들에게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4일 오전 전북에서 에너지정책을 발표한 뒤 광주로 이동해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길자씨, 김송희씨, 박선우씨,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오월어머니 20여명이 참석했다.

김길자씨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된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다.

한림대 미디어스쿨 2학년인 박선우씨는 12·3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국회 앞으로 달려간 대학생이며, 김송희씨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여동생으로 이 후보 대선 경선 캠프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5·18 정신에 대한 입장과 헌법 전문 수록 등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속적으로 광주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영원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역사 속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평화와 인권을 확장하는 그 아람로 전 세계 민주주의의 정신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광주에 오니 마음이 새로워진다. 최근 계엄 사태를 보면서 가슴이 찡찡했다”며 “1980년 5월의 광경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0년 5월이 2025년의 대한민국을 구했다. 우리는 내란 사태라는 위기 속에 빠진 대한민국을 이겨내고 다시 번영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그 힘은 결국 국민들에게서 나온다”며 “광주정신은 위대한 것이기에 수 없이 약속했던 만큼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권력구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4년 중임제로 하되 총리 추천제 등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지는 새로운 체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사회적인 새로운 변화가 ‘빛의 혁명’을 통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일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이”고 역설했다.

다만 “헌법 개정에 모든 조항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에 합의되는 내용 대로 순차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과 동시에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다음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안에 대해 공약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뒤 다음 임기 내 개헌하는 것



24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고(故)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씨, 5·18 유가족 김송희씨, 강유정尹파면추구생명문화인 등이 참여했다.

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부터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까지 과정을 ‘빛의 혁명’이라 칭하며 이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빛의 혁명’은 빛고를 광주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없는 현실 권력을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국민들이 끌어내린 세 계사에서 유일한 항쟁이자 그야말로 드러

나 같은 일이다”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대동세상은 잠시였지만 이후 촛불혁명으로 발전해 이어졌고, 빛의 혁명으로 완성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정 또는 한 사람의 행동들이 모여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내고 있는 데 한 사람의 그 순간 모든 행동이 엄청난 역사 사료가 될 것이다”며 “‘빛의 혁명’에 참여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역사적 행동

들이 공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이 후보는 전일빌딩245층에서 열리고 있는 ‘계엄에서 탄핵까지 123일의 광주의 기록전’을 참관한 뒤 10층으로 이동해 건물에 남아 있는 헬기에서 사격한 총탄의 흔적을 둘러봤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김동연 “광주, AI·미래 모빌리티 도시로 조성”

호남 1박 2일 일정 방문 전남 국립의대 신설 약속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해 광주는 ‘좋은 일자리’, 전남은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4일 전북도당 당원들과 간담회에 이어 전남 장성군 황룡시장을 방문했다. 그는 이어 광주에 있는 한국광기술원을 찾아 광산업 기업체 관계자들과 ‘광주 산업과 일자리’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호남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나 오니 젊은 인재들이 (호남을) 등지고 있다”면서 “호남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산업을 키워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광주를 대한민국 대표 AI·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 대기업도시로 조성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광기술원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R&D예산 삭감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김 후보는 “예산 삭감으로 산업 생태계 교란은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경

기도는 오히려 R&D 예산을 40% 늘려 예산을 지원받던 기업을 지원하러 왔는데, 문제를 잘 알고 있는만큼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잘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광주 빛그린국가산단·미래차국가산단 일원을 대한민국 대표 AI·모빌리티 융합 기반의 대기업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

김경수, 호남 강행군 행보… 지지 확보 나서

전남 들머 당원과 소통 지역 성장 전략 등 강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또 다시 호남을 찾아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호남지역 경선투표부를 앞두고 지역 민심에 귀 기울이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날 목포 동부시장에서 찾아 상인 및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 상권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민주당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전남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당심을 청취했다.

또 저녁에는 순천 중앙서점에서 순천·여수 지역 당원들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메가시티 전도사’를 자처하는 김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전남 목포시 동부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는 간담회를 통해 “광주·전남 메가시티 지방정부에 매년 5조 원의 자율예산을 지원해 전남의 운명을 전담 책임지게 만들겠다”며 “전남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좋은 인재로 길러지고,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 취업해 더 이상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겠다”

는 정책 비전을 설명했다. 한편 김경수 후보 배우자인 김정순 여사는 전남 신안군 입자도가 고향이다. 김 여사는 목포 산정초등학교와 항도여자중학교를 졸업 후 광주에 위치한 살레시오 여자고등학교를 나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더욱 특별하고 품격 있게. 잊지 못할 순간으로 -

HOTEL 아트하임

VIP CLUB 무기명회원 모집

상담문의 062.415.7330

혜 택	Vvip 1천만 (3년)	Vip 4백만 (1년)
숙 박	연40박 (한시적), 추가 숙박시 주중 30% 주말 20%	
조 식	숙박시 조식 2인 무료(연 36회) 추가 증정	
사 우 나	무료 사용	
피 트 니 스	무료 사용	
커피 슝	커피 50% 할인, 기타음료 20% 할인	
골 프 대 회	그린피 무료, 시상식, 연 1회	
컨퍼런스룸	연 10회, 1회 타임 3시간 무료 사용	
연 회 장	10% 할인	
웰니스프로그램	전문의 초청 건강세미나 연 2회	
광 남 일 보	기업탐방 및 오피니언 리더 특집기사 연 2회 전문 이미지 광고 광남아카데미 초청 강연 연 10회 (석식제공, 사전예약)	
광주버스 방송	광주시내버스 내부 모니터(버스 1대당 모니터 2대) 20대 12개월 / 50대 4개월 / 100대 2개월	
	3년 3회 제공 (4,800만원 상당)	1년 1회 제공 (1,600만원 상당)
월간지전라도인	3년 무료구독	1년 무료구독

(주) 호텔아트하임 멤버십 클럽은 지역정문지 “광남일보” 종합광고대행사 “에드하임” 이 함께합니다.

★ 대면회장(150명) / 소면회장(30명) / 스키어리운지(80명) 예약운영

HOTEL 아트하임 (주·베를리너호텔)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예약문의 062)236-5881